

여야, '수영 월북' 軍 경계 질타...정경두 "무한 책임지겠다"

여 "진상조사 명명백백히 해서 시스템 보강해야"
야 "文대통령, 北평화공세 따라가다 국방에 허점"
정경두 "국방 책임의 끝은 장관...무한책임질 것"

여야가 탈북민 김모씨의 재입북 사건과 관련, 군(軍)의 '경계실패'를 질타하고 후속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계태세에 추호도 빈틈이 있어서 안 되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면서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군 기강, 작전 기강 차원에서 신상필벌하고 전·후방 각지 경계태세 시스템을 보강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최근 들어

서 김포·강화로 이어지는 한강하구에서 귀순도 하는 데 반박이 된다"며 "물론 전체를 물설 틈 없이 하는 게 매우 어렵다. 그래도 이렇게 횡수가 잦아지는 것은 분명히 문제"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김포·강화 지역의 경계근무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매뉴얼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했다.

설훈 의원은 "장비들이 북쪽에서 넘어오는 걸 감시하기 위해서 주로 만들었지만 지금 월북한 걸 보면 북쪽에서 밀고 내려 올 수도 있는 이야기 아니냐"라며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설 의원은 "일부러라도 들어가

서 확인했다면 쉽게 뚫리지 않았을 텐데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후진선 전체에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대식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이 한강을 헤엄쳐 월북을 했는데 우리 군은 북한방송에 보도된 후 이러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한다"며 "상상만으로도 아찔한 상황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렇게 허술한 군사 대비태세에 적군의 간첩이 우리 국토에 침투해서 첩보 활동 등 마음껏 활보하다가 탈출하지 않았다고 누가 확인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원식 의원은 맥아더 장군의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을 인용해 "너무나 막강한 적과 싸울 때는 열심히 해도 질 수 있지만 경계작전 그럴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의원은 "경계작전 실패는 장병의 성실성, 정신전력이 헤아려졌다는 소리"라며 "경계작전 실패는 표피적 원인이 있겠지만 본질은 장병 정신 전력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라"고 했다.

윤주경 의원은 "하늘과 바다, 땅에서 많은 장비가 애쓰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그들의 잘못인 것처럼 되는 것이 너무 슬프다"며 "어딘가 구멍이 있다는 것은 그 정도의 구멍은 눈감아도 된다는 안일한 의식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재익 의원은 "우리 국방의 경계태세 실패를 보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러한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그야말로 안보문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추지 않고 허황한 북한의 평화공세에 계속 따라가면서 국방 문제에는 굉장히 허점을 많이 노출시켰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다"며 경계태세에 대한 신상필벌과 지휘책임 추궁을 촉구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월북 사태에 대해 "국방과 관련된 모든 책임의 끝은 국방부 장관에게 있다"며 "저는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께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합참의장으로서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있고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며 "향후 어떤 우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해나가기 위해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與 최고위원 후보들에게 이해찬은 "무섭다"·"버럭은 좀"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출마한 최고위원 후보들이 임기를 마치는 이해찬 대표에 대한 존경을 내놨다.

신동근·김종민·노웅래·이원욱 후보는 28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떠나는 이대표에게 한마디를 해준다면"이라고 물은 데 대해 각자 생각을 밝혔다.

재선부터 4선 중진까지 망라한 이들은 '이해찬 지도부' 2년을 겪은 현역 의원들이다.

신동근(재선·인천 서을) 후보

는 "이제 공천도 받고 했으니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도 되나"라고 운을 댄 뒤 "대표님, 어쨌든 180석의 유례없는 승리를 이끌어 주셨지만 그 특유의 까칠함과 또 지나친 자신감이 때로 약간의 화를 부르지도 않나"라고 지적했다.

신 후보는 "어쨌든 누구보다도 아마 당내 최고의 전략가가 아닌 가 싶다. 저도 전략가를 표방하고

신동근 "최고의 전략가... 지나친 자신감은 자제물"

김종민 "본인이 '다 해봤다' 보니 과감함 아쉬워"

노웅래 "아무 때나 '버럭' 배우기 그래...여파 있어"

이원욱 "애기하러 가면 혼나는 느낌...단정적 어조"

나왔는데 그런 점에서는 닮고 싶다"면서도 "잘난 척까지는 아닌데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하진데 조금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김종민(재선·충남 논산계룡군) 후보는 "아쉬운 것은 2년 동안 당을 이끌어오시면서 당신 자신이 워낙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이

잘 알다보니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니면 안 가시는 것"이라며 "위기 관리 측면에서 보면 확실한 길,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또 두드려 보고 이런 게 중요한데 실제로 그것만 가지고는 (당이) 도약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내가 이해찬 대표랑 대화를 하면서 약간 답답하거나 좀 한계라고 느꼈던 것은 당신

이 (만사를) 다 해봤다. 해봐서 대부분의 어떤 새로운 상상력,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대부분 안 된다고 생각하신 게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감한 혁신이나 과감한 도전 이런 측면에서는 이해찬 대표님이 조금 아쉽지 않았다. 다음 지도부는 그런 방향으로 좀 한 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다.

노웅래(4선·서울 마포갑) 후보는 "분명히 잘난 척을 할 만큼 업적을 냈다"며 "우리 21대 국회에서 180석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기셨던 거는 사천이 아니고 공천을 하는 데 담당하게 임하셨다는 거는 우리가 칭찬하고 박수를 보내야 될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노 후보는 그러면서 "그러나 버럭하는 거는 우리가 배우기는 좀 그렇다"며 "아무 때나 버럭하면 그게 그냥 금방 끝나는데 아니고 여파가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3선·경기 화성을) 후보는 "나는 이해찬 대표님 무섭다"며 "이런저런 말씀을 좀 드리러 가 봐도 내 이야기를 잠깐 아주 진술하게 표현하고 진술하게 충고를 듣거나 이렇기 광장히 힘들고 말씀드리고 나서 또 한참 동안 혼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고 나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 무서움이 성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그냥 오랫동안 경륜으로부터 배우아오는 '내가 옛날에 이렇게 해봤으니까 이런 거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자네도 이렇게 해' 이런 단정적 어조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인 약간 무서움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했다.

뉴스시스

박지원 국정원장 청문보고서 채택

與 7명 참석해 단독 의결
野 "조건 거부하니 불참"



기 간사를 비롯해 김홍걸·조정식·김경협·노웅래·이재호 의원이 지리했다.

앞서 통합당 정보위원회 주호영·하태경·조태용 의원 등은 오전 기자회견에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3년간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4·8 남북경제협력 합의서'를 어떤 합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했다.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아침에 이야기하고 보고서 채택에 도움을 주려고 조건을 제시했는데 다 거부됐다"며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 (회의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이어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고 자동으로 임명되는 것은 아니니 대통령이 임명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대표전화 ☎ 062) 229-6000
기사제보 222-2580
광고 직통 228-258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